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태동과 발전방향

황향희*
강원대학교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Trend of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Hwang, Hyang H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establish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rhythmic kinesiology by introducing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can be divided into the foundation process and the period of beginning (2005~2008), the period of pioneering (2009~2010) and the period of formation (2011~present, 2015). Since its launch on September 25, 2005,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ports changed its name to the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on December 11, 2009. By holding symposiums twice a year (spring, autumn) and issuing journals (June, December), the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the recognized academic identity of rhythmic kinesiology. The rhythmic exercise scholars and the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need to work together to establish academic identity of rhythmic kinesiology.

Key words :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 Rhythmic Kinesiology, Rhythmic Exercise scholar, Development plan

I . 들어가기

우리나라 체육학의 학문적 분류체계는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체육학의 포괄적 핵심학회인 한국체육학회에서는 체육관련학회로서 16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운동생리학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한국운동역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

* phyhee@kangwon.ac.kr

이선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16개의 학회를 분과학회라고 일컬으며 이들 학회에서는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체육학의 학문분류는 이들 학회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분류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목록을 통해 체육학과 관련된 다른 세부학문분류를 살펴보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운동학 학술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코칭능력개발지, 한국골프학회지, 한국스포츠헬학회지 등이 있고 융·복합학으로 학제간 연구를 하는 한국운동재활학회지, 한국웰리스학회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체육학의 연구영역이 확장되고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1세기 창조경제시대는 지식, 기술, 학문 간의 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김왕동, 2011).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고 체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문명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학준(2009)은 학문의 명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초점, 연구의 방법, 지식의 총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의 초점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른 학문 영역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연구방법은 지식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구분하여 양적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더 자세히는 귀납법과 연역법, 참여관찰, 심층면담,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의한 사회과학연구, 실험과 관찰을 통한 자연과학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총체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어떤 학문이든 지식의 총체는 개념, 명제 그리고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이학준, 2009).

덧붙여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현상의 재해석과 재구성이 필요한 가운데 체육의 새로운 학

문분야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이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리듬운동학은 연구의 초점, 연구방법, 지식의 총체, 사회적 요구 등이 구성되어 있다. 리듬운동학은 학문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여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1989년 류영란과 오세복에 의해 처음 ‘리듬운동’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등장한 이래 한국학술정보(RISS)의 상세검색란에서 제목으로 ‘리듬운동’ 키워드를 검색하면 학위논문 55편, 학술지논문 103편, 단행본 16편으로 총 174건이 검색되고, ‘리듬운동’이란 완전일치도로 재검색하면 학위논문 4편, 학술지논문 22편으로 총 26편에 그친다.

황향희(2011)에 따르면 리듬과 관련된 스포츠종목 연구와 리듬운동의 이론적 고찰, 리듬운동을 통한 사회과학, 자연과학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2000년 이후부터만 해도 1,000편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리듬체조종목과 관련한 학위논문은 27편, 학술지논문은 32편,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은 학위논문 3편, 학술지논문 1편, 피겨스케이팅은 학위논문 9편, 학술지논문 8편이다. 에어로빅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101편, 학술지논문은 139편, 댄스스포츠는 학위논문 396편, 학술지논문 441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리듬과 관련된 각각의 종목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배경은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각각의 종목이 하나의 체육학의 학문분야로 인정받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종목을 총칭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요구와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체육학의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리듬운동학의 발전가능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한국리듬운동학회의 발전과정

1. 창립과정 및 태동기(2005~2008)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태동은 2005년 9월 25일 배소 심교수와 이진범, 곽형기, 최길례 외 12명이 가평수련원에서 한국댄스스포츠학회 발기인 상견례 및 수련회를 통해 학회명칭과 정관을 정하고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이 시작이다.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1대 학회 회장으로 동덕여자대학교의 최길례교수를 추대하고 향후 학회 계획을 논의하였다.

창립이후 2006년에는 9월 30일자로 한국댄스스포츠학회 창간호가 출판되었고 세 번(4월 21일, 5월 12일, 5월 26일)의 댄스스포츠 실기세미나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10월 21일에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집 창간 기념행사, 제2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2007년에는 제2권 한국댄스스포츠학회지가 발행, 12월 8일에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약 120명의 학회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와 실기워크숍, 제3회 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했다.

2008년 2월 27일 신년모임을 가진 이후 그 해 12월 9일 제4회 정기총회에서 2대 신임회장으로 신한대학교(구. 신홍대학) 김은혜교수가 추대되었다.

2005년 9월 25일 한국댄스스포츠학회가 창립한 이후 2008년 12월 9일 제2대 신임회장으로 김은혜교수가 추대되는 시기까지가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태동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학회의 준비시로서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가졌고 특히

댄스스포츠 실기워크숍을 통한 학회발전을 도모한 노력이 엿보인다.

2. 개척기(2009~2010)

제2대 김은혜회장은 2009년 3월 27일 신홍대학 베네셀관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보고와 새로운 임원선출 및 정관개정, 2009년도 사업 및 예산건을 심의하였다.

2009년 4월 17일 1차 상임이사회의에서는 4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첫째, 학회명칭개정건으로 리듬운동과학회 또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학회명칭변경의 필요성 의견이 개진되었다. 둘째, 연구 분야의 범주를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셋째, 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사영입이 필요 넷째, 연구재단의 등재지 평가를 준비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1차 상임이사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고 11월 13일 2차 상임이사회의에서 한국리듬운동학회 또는 한국리듬운동과학회 2개의 학회명칭으로 축약되었고 12월에 있을 제6회 정기총회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 2차 상임이사회의에서는 등재지 평가를 위해서 2010년부터 학술지를 연간 2회 출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신설요구가 있었다.

2009년 12월 11일 동덕여자대학교 동인관에서 학술세미나 및 제6차 정기총회가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댄스스포츠학회는 ‘한국리듬운동학회’로 새롭게 명칭변경을하기로 결정되었고 ISSN 등록변경을 신청해 최종 2009년 12월 29일자로 한국리듬운동학회가 재탄생하였다.

한국리듬운동학회의 명칭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김은혜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10년 1월 22일 신년하례식과 상임이사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2007년 제2권 학술지를 끝으로 휴면이었던 학술지가 2010년 6월 30일(3권 1호), 12월 30일(3권 2호)에 한국리듬운동학회지로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고, 강원대학교에서는 2월 19일~20일 양일간에 걸쳐 리듬운동사(3급 재활필라테스)연수를 실시하고 4월 3일자로 22명의 3급 재활필라테스 리듬운동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10월 15일에는 학회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공식적으로 학회 사무국이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형성기(2011~2015 현재)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2대 김은혜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한국리듬운동학회’라는 새로운 학회명칭과 홈페이지 운영, 리듬운동사 양성, 연간 춘계,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및 2회씩 학회지 발행 등 과거 한국댄스스포츠학회에서 한국리듬운동학회의 체재로 새롭게 개척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를 학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형성기라고 언급하고 싶다.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태동기, 개척기 때와는 달리 학회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월 21일 서울 잠실에서 신년하례식 겸 상임이사,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3월 7일 교육분과회의에서는 리듬운동사 양성 및 다양한 리듬운동 교육에 관한 발전방향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6월 12일 신홍대학교에서는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의 율리아 선생을 모시고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바디아트(BodyArt)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료증을 발급했다. 즉, 학회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리듬운동 영역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2012년부터는 학회사업이 좀 더 체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간 2회(6월, 12월)의 논문집이 발행되는데 회당 4~5편의 논문이 꾸준히 게재되고 학술세미나의 경우 춘계학술대회는 수도권을 벗어난 곳에서

개최하고 추계학술대회는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리듬운동학의 학문적 확립을 위해 전국의 대학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2년 8월 22일에는 한국학술정보와 학회논문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리듬운동학회 논문의 저작권 보호절차를 갖추었다.

또한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발행 외에 2회에 걸쳐 리듬운동사(3급 필라테스, 3급 요가) 양성교육이 있었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대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코자 전문성을 갖춘 학회 임원들을 강사진으로 확보하고 저렴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시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더욱더 리듬운동사 자격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러한 결과 국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도록 제도화한 민간자격 신청(2013년 8월 31일자)을 했고, 그해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리듬운동학회는 리듬운동학의 학문적 발전과 이론의 정립,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리듬운동사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체육학의 하위학문으로서 리듬운동학을 인정받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의 발전은 물론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Ⅲ. 학술세미나의 발자취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학술세미나는 2005년 한국댄스스포츠학회 창립 이후 2006년 10월 21일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8일까지 두 번의 학술세미

나를 개최한 후 2009년 3월 27일 신한대학교(구. 신흥대학)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댄스스포츠의 인문·자연과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이명천교수(단국대학교)의 ‘댄스스포츠의 자연과학적 접근’, 이천희교수(고려대학교)의 ‘댄스스포츠의 유용성과 가치’라는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만 해도 한국댄스스포츠학회의 명칭으로의 마지막 학술세미나였기 때문에 ‘댄스스포츠’가 연구의 대상이었다.

2008년과 2010년에는 학술세미나가 열리지 않았다. 아직까지 학회가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댄스스포츠학회로 태동한 한국리듬운동학회는 동덕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태동했다. 댄스스포츠를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학문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출발을 했으나 하나의 리듬운동 종목을 가지고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리듬운동학자들은 댄스스포츠를 비롯한 에어로빅스, 무용, 리듬활동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의 탄생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리듬운동학회가 재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술세미나의 주제선정과정에도 리듬운동학의 학문적 정체성 찾기에 노력했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리듬운동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을 탐색하면서 ‘리듬운동’ 개념정립을 하고자 했다.

‘리듬운동’이란 용어의 개념 확립이 모호한 상태였기에 리듬운동의 개념정립을 통한 리듬운동학의 정체성 찾기에 힘을 기울였다.

최초로 리듬운동이란 학술적 용어를 사용한 류영란(1989)은 자연운동을 기반으로 한 메다우 리듬운동의 개념을 정립했고, 오세복(1989)은 인간의 자연적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조화를 이룬 신체활동의 자연적인 리듬을 리듬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듬운동 학자인 이영숙

(1996)은 인간의 자연적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한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조화를 이룬 신체활동을 통한 Rhythmic movement라고 정의하였다(황향희, 2011 재인용).

그 이후에도 박인숙(1997), 최정아(2001), 이승미(2008)는 리듬운동이란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서 하는 운동을 의미하며, 특정 스포츠나 무용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듬에 맞춘 신체의 움직임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황향희, 2011 재인용).

한국리듬운동학회가 재탄생한 후 박경희(2010)는 리듬운동이란 다양한 리듬에 맞춘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스포츠나 무용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여러 종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다음해 황향희(2011)는 박경희(2010)의 리듬운동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리듬운동이란 다양한 리듬에 맞춘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스포츠나 무용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모든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수정한 내용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박경희(2010)는 리듬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여러 종목으로 국한 지었다면 황향희(2011)는 여러 종목을 포함한 리듬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신체활동으로 종목을 포함한 모든 신체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리듬운동의 개념이 정립되는 가운데 이현영(2011)은 리듬운동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리듬운동을 신체표현리듬운동과 신체인식리듬운동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체표현리듬운동은 무용, 댄스, 에어로빅스, 리듬체조 등을 포함하며, 신체인식리듬운동은 요가, 필라테스, 펠드크라이스, 기공체조 등으로 분류하였다. 즉, 이현영(2011)이 제시한 모

표 1. 학술세미나 발자취

내용						
년도	시기	주제		일시	장소	참석인원
2011	춘계	리듬운동학의 발전방향 모색	-리듬운동학의 연구경향 -움직임을 통한 자기인식 방법: 펠튼크라이스요법	5.28(금) ~30(토)	강원숲 체험장	20명
	추계	리듬운동학의 연구동향 탐색	-카테일 통합 리듬운동방법의 모색 -노인여가복지를 위한 Active Senior 연구동향 -초등학교 리듬운동 움직임 표현의 발달론적 접근 -운동심리학에 근거한 리듬운동의 학문적·실천적 발전방안	12.8(금)	춘천 교육대학교	30명
2012	춘계	리듬운동학의 실천적 접근	-정신건강을 위한 활인심방 운동프로그램의 리듬운동적용가능성 -리듬운동 참여자들의 운동실천 촉진방안 -라인댄스의 개요 및 연구동향	6.1(금) ~2(토)	신성대학교	20명
	추계	리듬운동학의 학문적·실천적 가치	-리듬운동의 심리적 가치 -ACL손상환장에서 복합재활운동프로그램이 슬관절의 고유수용감각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 -리듬운동 지도자 양성에 대해 리듬운동 학자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11.23(금)	송실대학교	30명
2013	춘계	리듬운동을 통한 현대사회의 복지구현방안	<주제발표> 춤을 테마로 성공한 축제사례-천안홍타령춤축제 -교원특수분야 연수 및 노인체육지도자과정 등을 통한 리듬운동 분야 발전방안 모색 -실버세대의 리듬운동을 통한 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Functional Exercise가 어깨불안정성 중년여성의 ROM과 근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근골격질환증상 농업인들의 운동프로그램과 적용사례	5.31(금)	남서울대학교	58명
	추계	리듬운동을 통한 현대사회의 복지구현 실천적 접근	<주제발표>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스포츠 역할과 정부정책 -리듬운동지도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 독일 체조연맹 지도자 양성제도를 근거로 -복지구현차원의 아동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용 진도복춤 모형 탐색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례 -운동역학과 리듬운동의 융합학문 실천사례	11.29(금)	신한대학교	80명
2014	춘계	미래사회를 대비한 리듬운동학의 방향	<주제발표> 미래 체육의 전망과 리듬운동의 과제 -미래사회를 대비한 장애인 리듬운동 프로그램 활용방안 -리듬운동 뉴패러다임	6.13(금)	서울대학교	57명
	추계	미래사회를 대비한 리듬운동 현장 사례	<주제발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현황 -리듬운동의 심리치료적 접근: 심리기법으로서의 리듬운동 활용 사례 -필라테스에서 발견한 통합 그리고 시사점 -초등학교 리듬댄스 활동이 집단따돌림 예방에 미치는 영향	12.5(금)	춘천교육대학교	80명
2015	춘계	리듬운동의 다면적 재해석	<주제발표> 한국리듬운동학회의 발자취와 발전방향 -몸으로의 탐구-<신체언어>수업을 중심으로 -마음챙김 명상과 리듬운동 -연구윤리 : 논문표절과 연구노트	5.30(토)	송실대학교	40명
	추계		미정			

든 신체활동에는 다양한 리듬이 있고, 리듬에 맞춘 신체의 움직임이 있으며, 리듬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목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모든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이현영(2011)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신체표현’과 ‘신체인식’의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준거라고 생각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리듬운동학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리듬운동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연구동향을 탐색하며, 학문적·실천적 가치를 논하였으며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또한 리듬운동학을 통한 현대사회의 복지구현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접근 방법을 현장사례를 통해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2014년에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리듬운동학의 방향과 현장 사례를 통한 가능성 검증이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문화·환경 속에서 학문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나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성과물이 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이 학문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리듬운동학회 학술세미나는 리듬운동학의 정체성 기준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정체성을 입증했다고 말할 수 있다.

IV. 학술지의 발자취

한국리듬운동학회의 전신인 한국댄스스포츠학회가 2005년 탄생한 후 1년 뒤인 2006년 9월 30일 「한국댄스스포츠학회지」가 총 9편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발간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7년 12월 31일 7편의 논문으로 제2권이 발행되었다. 이 당시 신설학회로서 원고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논문이 접수되었다.

그 이후 2008년, 2009년에는 학술지 발행은 잠시 휴면상태였다. 연구자는 이 시기를 한국리듬운동학회 태동기(2005~2008)에서 개척기(2009~2010) 사이의 과도기라 말하고 싶다. 학회명칭의 새로운 탄생과 함께 학회의 임원의 변화, 과거 동덕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학회가 태동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전국 규모의 리듬운동학자의 영입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010년 6월 30일 한국리듬운동학회의 명칭으로 제3권 1호가 발행되었다. 총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 시기에 편집위원장을 맡고 활동했던 연구자로서 회고하면 학회의 발전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전국 리듬운동학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한국리듬운동학회지는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0일)의 평균 4~5편의 논문을 게재, 발행하고 있다.

리듬운동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리듬운동의 개념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시된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스, 필라테스, 요가, 리듬체조, 무용 등의 종목으로 국한할 것인가? 이러한 단편적인 제한은 리듬운동학의 학문적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리듬운동학의 대상은 앞에서 제시한 대로 특정리듬 스포츠나 무용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모든 신체활동이다.

<표 2>와 <표 3>은 한국리듬운동학회지의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경향성을 분석하고, 이현영(2011)의 리듬운동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영역을 분류, 연구되어진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리듬운동의 종류는 신체표현리듬운동의 연구가 신체인식리듬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아동부터 대학생, 중년여성, 노인애 이르기까지의 수직적 생애주기별 대상을 포

표 2. 학술지의 양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경향

대상	리듬운동 분류기준		변인
	신체표현리듬운동	신체인식리듬운동	
초등학교 아동	무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성향
비만아동	무용		사회성, 자아개념
동호인	댄스스포츠		운동행동변화과정, 자기효능감
성인 참가자		필라테스	안정성
동호인	한국무용		운동학적 및 하지근 근전도 분석
노인	새천년건강체조		혈중지질 변화
직장여성	댄스스포츠		삶의 질
동호인		요가	신체적 자기개념
동호인	에어로빅스		참여정도, 운동중독
리듬운동동호인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살사댄스, 밸리댄스 등		리듬운동 전문화, 자아실현, 생활만족
중년여성	모션비트 리권운동		스트레스 호르몬
성인여성	라인댄스		운동정서, 몰입, 지속적 참여의사
댄스가수	복합운동프로그램		신체조성, 기초체력, 사회적 체형불안
노인	신체표현리듬운동프로그램		운동변화과정과 학습된 자원동원성 변화
골관절염 환자	수중리듬운동		관절통증정도와 일상생활능력의 차이
노인	리듬운동 복지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연령정체감, 심리적 행복감
리듬체조선수	리듬체조		운동학적 피드백, 볼동작 학습효과
동호인	한국무용		무용경력, 운동학적 변인
비만 여대생	모션비트적용 리권운동		운동자각도, 혈중젖산농도, 복부지방
노인	통합형시니어건강힐링프로그램		자기평가체형
초등학생	리듬댄스 활동		집단따돌림 예방

함하고 있으며 수평적 연구대상에서도 각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 직장인, 골관절염 환자, 장애인 등 고된 연구대상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종택(1996)에 따르면 지식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리듬운동학회지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이루어져 리듬운동학의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의 지식의 총체는 개념, 명제 그리고 이론으로 구성되어진다(이학준, 2009).

리듬운동학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리듬운동학의 연구영역이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방법은 가장 엄밀한 방법으로 현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고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이강현, 구우영, 정구인, 정용각, 2015).

한국리듬운동학회지는 인문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리듬운동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리듬운동학의 독특한 지식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으로 인정받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3. 학술지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경향

연구분야	연구내용
해비치 씨지스쿨 무용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리듬운동학	현황 및 발전방안
필라테스 수업	참여자 인식분석 -대학 교양체육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 댄스스포츠	발달사 재해석 -1896년~1945년-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연구의 추이
펠튼크라이스 요법	현장적용 가능성
초등학교 리듬운동 움직임표현	발달론적 접근
운동심리학에 근거한 리듬운동	학문적, 실천적 발전방안
댄스스포츠 심판	판정전문화에 대한 경험적 과정
필라테스 지도자	교수행동 분석
국내 리듬운동학의	연구경향 분석
비보이 댄스	변천사
무용영재성	요인탐색
신체활동과 음악의 관계	고찰
교사의 댄스스포츠 동호회	참여 실태 분석
리듬운동 지도자 양성에 대한	학자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도인양생공	운동치료프로그램 고찰
실버세대 리듬운동	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간이담공 동작	한의학적 경혈점의 효과 고찰
문화예술소비	현황 연구
리듬운동지도자	전문성 제고 방안 -독일제조연맹 지도자 양성 제도를 근거로-
복지구현차원의 아동정신건강	활인심방 운동프로그램 모형 탐색
한류의 발전과 댄스음악	K-Pop 수출동향 연구
지적 장애인 리듬운동 프로그램	미래사회를 대비한 리듬운동 활용방안
팔단급 동작	한의학적 효과 고찰
리듬운동	심리치료적 접근

V. 나가기

지금까지 한국리듬운동학회의 2005년 태동부터 2015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걸어진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가 아닌 학회지에 논문투고를 원치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아직 미등재지이지만 리듬운동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회회원들의 노고에 감

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리듬운동학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입성이다.

연구자는 한국리듬운동학회의 발전과정을 창립과정과 태동기(2005~2008), 개척기(2009~2010), 형성기(2011~2015년 현재)로 나누었다. 2015년은 학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야 하는 시기로 올해는 학회홈페이지 개편 및 편집위원장 등 분과위원의 변화도 있다. 학회가 2015년

을 기점으로 안정기에 돌입하기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리듬운동학은 리듬운동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안내와 리듬운동 관련 지도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박경희, 2010).

먼저 리듬운동학자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리듬운동학자는 리듬운동학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연구자이어야 한다. 둘째, 대학에서는 리듬운동학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역할을 한다. 셋째, 생활체육 현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리듬운동사 양성을 위한 정책제안자이어야 한다.

즉, 리듬운동학자는 연구를 통해 리듬운동학의 인문사회학적, 자연과학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문적으로 확립된 이론과 실기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연구를 기반으로 검증된 이론과 실기를 현장에 활용하여 리듬운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리듬운동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 간의 연구 협력을 통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리듬운동학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세계 다른 국가의 리듬운동학의 발전과정 현재의 학문적 위치를 판단하고 국가 간의 리듬운동학 발전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세계 리듬운동학자들의 교류가 요구된다.

이러한 앞으로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리듬운동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틀마련이 될 것이며, 한국리듬운동학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왕동(2011).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STEAM 교육. 교육정책포럼, 215, 8-12.
- 김종택(1996). 운동학연구법. 대한미디어: 서울.
- 류영란(1989). MEDAU 리듬운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경희(2010). 리듬운동학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리듬운동학회지, 3(1), 21-28.
- 박인숙(1997). 리듬운동이 체력, 체지방 및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6(1), 23-31.
- 오세복(1989). 초등학교에서의 리듬운동을 통한 창조적 움직임 지도의 일모형.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25(1), 115-133.
- 이강현, 구우영, 정구인, 정용각(2015). 운동행동과 스포츠심리학. 대한미디어: 서울.
- 이승미(2008). 비만중년여성의 신체조성·체력·신체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리듬운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서울.
- 이영숙(1996). 리듬운동교육의 이론적 고찰. 상명대학교 사회체육연구소 사회체육연구지, 5(1), 1-12.
- 이학준(2009). 운동학의 학문적 가치와 체계. 운동학학술지, 11(3), 1-10.
- 이현영(2011). 운동심리학에 근거한 리듬운동의 학문적, 실천적 발전방안. 한국리듬운동학회지, 4(2), 31-39.
- 최정아(2001). 여성의 리듬운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전북.
- 한국댄스스포츠학회(2009. 3. 27일자). 제5회 한국댄스스포츠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 한국댄스스포츠학회(2010. 12. 11일자). 제6회 정기총회 자료집.
- 한국리듬운동학회(2011. 12. 9일자). 리듬운동학의 연구동향 탐색. 2011 추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

회 자료집.

- 한국리듬운동학회(2012. 11. 23일자). 리듬운동학의 학문적·실천적 가치. 2012 추계학술세미나 및 제9회 정기총회 자료집.
- 한국리듬운동학회(2013. 11. 29일자). 리듬운동을 통한 현대사회의 복지구현 실천적 접근. 2013 추계학술세미나 및 제10회 정기총회 자료집.
- 한국리듬운동학회(2014. 12. 5일자). 미래사회를 대비한 리듬운동 현장 사례, 2014 추계학술세미나 및 제11회 정기총회 자료집.
- 한국리듬운동학회(2015. 5. 30일자). 리듬운동의 다면적 재해석. 2015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황향희(2011). 국내 리듬운동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리듬운동학회지, 4(2), 79-88.

논문투고일 : 2015. 4. 30.

심사일 : 2015. 6. 24.

심사완료일 : 2015. 6. 28.